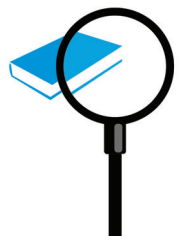


알코올로 풀어보는 화학의 품미...한권의 과학에 취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들뜨는 밤엔 화학을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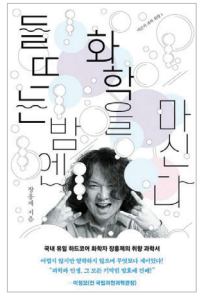
장흥제 지음

제목부터 끌리는 책이 있다. 물론 책은 '제목장사'라는 말이 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판매에 영향을 준다.

제목은 그럴싸했지 내용은 기대 이하인 책들도 많다. '늑였다'는 표현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색적인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흥미롭고 풍성하다면 그야말로 '독템'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들뜨는 밤엔 화학을 마신다'는 제목에 끌려 선택한 책이다. 책을 처음 본 순간 어떻게 화학을 마실까, 라는 호기심이 일었다. 일상과 친숙한 대상 가운데 마실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은 바로 술이었다.

"과학과 실험 속에 낭만이 살아 숨 쉰다고 믿는 화학자"인 광운대학교 장흥제 화학과 교수가 저자다.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술은 결국 화학"이라고 본다. "술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과학자보다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 한다"며 "이 책은 화학에서 용액(Solution)으로 쓰이는 술의 주요한 성분 에탄올



이 인생의 해답(Solution)이 되기까지' 술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은 대중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다.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 의약품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 노벨상의 기원이 된 폭탄에 대한 부분 등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술은 화학과 각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 순도 높은 알코올을 제조하기 위한, 독한 술을 얻기 위한 증류는 간단한 실험기법 가운데 하나다.

최초의 술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 먼저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과한 과일을 먹고 취해 비틀거리는 원숭이의 모습, 이른바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의 형태가 그것이다. 원숭이의 행태에 궁금증이 인 인간은 향기에 끌려 숙성된 과일을 먹었고 이내 숙취를 경험하기에 이른다.

인간이 술을 빚는 장면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실험문자에도 기록돼 있다. 밀폐할 수 있는 토기와 뚜껑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의미다. 물론 수메르의 시에는 보리빵을 이용해 맥주를 제조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조지아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 와인 흔적이 발견된 적도 있다.

연금술 대로 인간이 술을 마시게 된 계기는 발효된 과일의 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발효된 과일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안전하다.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하며, 체내에 들어간 알코올은 화학적 작용을 통해 분해된다.

빅토르 위고는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

인을 만들었다"고 했다. 즉 사람은 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모든 술은 에탄올을 함유한다. 과일에는 에탄올 성분이 있으며 배, 사과, 포도 등은 완숙했을 때 비알코올 맥주에 비해 약 0.05% 에탄올을 함유한다.

기호식품인 술은 몸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작용을 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감에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만드는 작은 우주와 같다"는 표현은 술의 향기는 '자연의 선물'이며 맛은 '인간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보기 좋은 술이 먹기 좋다'는 말도 있다. 초창기 맥주는 불투명하고 찌꺼기들이 섞인 모습이었으나 중세시대 맥주순수령을 기점으로 품질도 균일하고 황금빛을 얻을 수 있었다. 황홀한 술의 빛깔은 오랫동안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극했다. '녹색요정'으로 불리는 압생트를 자주 마신 이는 반 고초였다. 술은 그의 불안한 정신뿐 아니라 강렬한 화풍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믈리에가 와인, 위스키를 마실 경우 순차적으로 맡아보는 순서가 있다. 먼저 눈으로 색상을 보고 이후 향, 맛, 목 넘김이 그것이다. 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종합적인 예술이자 미식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술에 대한 이색적인 내용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많지만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에탄올에 의해 인간의 본질인 뇌의 억제제 억제된다면 적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까지 제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술을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휴머니스트·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가운데 술의 본질인 알코올을 빼놓을 수 없다. 인류가 오래 전부터 마셔온 와인.

<클립아트코리아>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

안도현 지음

'연탄제' 시인으로 알려진 안도현 작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특별한 책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시가 아닌 이야기로 존재의 자유와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출간된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는 자기 앞에 놓인 벽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던 한 여성 패션디자이너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헌법학자 안경환 선생의 모친인 조경희 패션디자이너의 먹먹했던 삶의 궤적을 담았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허구와 상상을 대폭 섞어 구성했다.

한데 장르를 구분짓기가 모호하다. 시인이었다가도 에세이 같고 어느 글에서는 소설 같기도, 때론 동화같기도 하다.

특정한 장르에 갇히는 걸 거부하는 저자는 기존의 예술 장르를 구분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다.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연어'가 어른을 위한 동화로 특정 장르에 얽매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는 국내에서 150만 부가 팔리고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된 '연어' 이후 가장 공들여 쓴 작품이다. 저자는 "결에 없는 자유를 찾던 사람들과 지금의 불확실한 미래의 주인이 되고 싶어 애쓰는 청춘들을 위해" 책을 펴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여든여섯 개의 챕터에 인간의 몸과 옷에 대한 철학적 서사를 서정적 문장으로 그려냈다. 여든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매혹적인 이미지와 시적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게으르게 페이지를 넘길 것을 추천한다.

<물개·1만4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알고리즘, 생각을 조종하다

산드라 마츠 지음, 안진이 옮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쥐는 스마트폰, 새벽까지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유튜브는 내가 좋아할 영상을, 인스타그램과 구글은 익숙한 광고를 반복해서 띄운다.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취향을 '학습'하고, 점점 더 정교하게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며 유도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그 선택은 정말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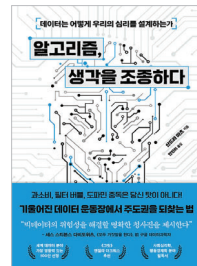
심리학자이자 전산 사회과학자인 산드라 마츠는 '알고리즘, 생각을 조종하다'에서 알고리즘이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책은 우리가 남긴 검색 기록과 클릭이 어떻게 심리 프로파일로 변환되고, 그 정보가 다시 우리를 조종하는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기술의 위험만을 경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 타겟팅의 원리를 역이용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 성격에 따라 메시지를 달리해 저축률을 높이고,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며, 필터 버블을 깨기 위한 '공감의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이 '선택지'를 지우는 '기술'이었다면 그것을 '선택지를 되찾는 기술'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화두다. 하지만 이용자가 스스로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기엔 바쁘고, 시스템은 복잡하다. 저자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없이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알고리즘의 편안함에 그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기업·정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각의힘·1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고이즈미 겐이치 지음, 오정화 옮김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의 나는 괜찮은 걸까. 특별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고이즈미 겐이치의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 길을 찾고자 했던 한 사람의 기록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삶의 방향을 의심하게 된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 앞에 선 그는 아틀러 심리학을 만나게 되고, 단지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마음먹는다. 하기 싫은 일에 "싫다"고 말하고, 지나치게 헌신하던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선다. 처음엔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곧 스스로 자신의 삶에 중심을 세우는 기분을 느낀다. 그렇게 1년 만에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책은 저자가 12개월 동안 겪은 감정과 깨달음을 따라간다. 불안과 비교, 후회 같은 익숙한 감정들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켜냈는지, 일상의 작은 훈련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기보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풀어낸다. 아틀러 심리학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과거를 탓하기보다 지금의 선택에 책임지기. 이 단순한 원칙이 삶의 결을 바꿔놓는다.

저자는 진짜 삶은 내가 주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나'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양북스·1만6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방수



창호(샷시)교체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